

# 元の雲肩에 관한 연구\*

-《集史》를 중심으로-

김 미 자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Woon Kyun of Won\* - Focused on the <Jipsa> -

Mi-Ja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2. 12. 30 투고)

### ABSTRACT

"Woon Kyun" was one of the shoulder cloth worn by both men and women during Won(元) Dynasty. The distinct features of Woon Kyun was that it had cloud-form embroidered on chest, back and both shoulders respectively and the front of it was opened.

It also glitteringly decorated with five different colored embroidery inserted with gold thread. 26 Woon Kyun out of 59 men demonstrated on the miniature of <Jipsa> were sele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historical periods, class and sex.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little change on its forms and patterns and people wore it without specific differentiation.

The common patterns of embroidery used were various kinds of animals and plants, however, plants seemed to be more preferred.

Key Words: Woonkyun(운견), Jipsa(집사), Miniature(삽화)

### I. 序 言

본 연구는 《集史》에 나타난 元の雲肩에 관한 연구이다. 雲肩이란 元代 남녀 즉 몽골인이 사용한

被肩의 일종으로 형태는 元史 輿服志에 의하면 四垂雲이라고 적혀 있다. 즉 같은 모양의 운문이 가슴과 등, 양 어깨의 4곳에 똑같이 늘어져 있고, 운문 안 쪽에는 여러 가지 무늬를 5색에 금을 삽입하

\* 본 연구는 2002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여 화려하게 장식한 것으로 앞이 트인 것이다. 원대의 雲肩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데 징기스칸을 비롯, 아버지, 아들, 며느리, 손자, 증손자, 관리 등 몽골인들이 착용한 雲肩을 《집사》의 插畫 중에서 발견하게 되어 雲肩의 형태와 무늬에 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高春明<sup>1)</sup>은 披肩은 披領이라 하며 方形, 원형, 菱形이 있으며 끈은 깃 주위(등, 어깨, 안깃, 겹깃)에 끼워진 것이다. 最古의 피건은 戰國시대의 河南洛陽全村 전구묘 출토 銅人의 方形 피건을 비롯하여, 漢代 벽화 인물상과 畫像石의 인물상, 魏晉南北朝. 隋, 唐까지 사용되다가, 五代에는 새로 생긴 운견(사수운)과 끈은 옷깃에 끼워 넣은 피건이 함께 사용되었다. 元代에는 2종류가 병용되다가, 明代에 피건 사용이 줄었다. 청대에는 황제, 황비, 관리의 피령이 새로 등장하였고, 운견은 장식적이 되어 여성이 주로 착용하였다고 하였다.

필자는 운견은 피건의 일종으로 분류한 고춘명의 이론에 찬성하여 원대 운견만을 연구한다.

연구범위는 파리 박물관에 보존된 《集史》의 삽화(細密畫, Miniature)에 나타난 운견인데 이것은 곧 몽골인의 운견이며 元의 운견이다. 元대의 雲肩은 가지자료가 별로 없으나 《集史》중 삽화의 운견으로 잘 알 수 있다.

연구대상은 문헌과 『集史』중의 삽화, 유물, 벽화, 浮彫像이다.

필자가 몽골제국의 5권<sup>2)</sup>에서 참고한 25점의 삽화 중에서, 雲肩이 있는 삽화 16점에 등장하는 120명 중 59명이 雲肩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무늬가 분명한 雲肩 26개를 선택하여 분석한다.

## II. 일汗國의 역사와 《集史》

### 1. 일칸국의 역사

징기스칸은 1206년(회종 2)에 몽고지역 전체를 통합하고 몽골족과 투르크계의 모든 유목민족을 지배하게 된 후, 징기스칸(成吉思汗)이라 칭하고

大蒙古國을 세웠다. 다음해부터 주위의 西夏國. 金. 西遼國 등을 정복하였고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러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 확대된 영토는 징기스칸의 여러 아들 및 동생들에게 분배되었는데 차남(차키타이)의 차카타이(察合台; 1237-1344), 3남(오고타이)의 오고타이(窩闊台, 元太宗), 장남의 아들(바투)의 킵차크(欽察; 1237-1502) 등의 汗國이 분립하였고, 몽고 본토는 막내 아들 툴루이(拖雷)의 차지가 되었다. 중국지역을 정복한 뒤 툴루이의 2남 쿠빌라이가 1271년에 국호를 元(1260-1370)으로 바꾸었다. 한편 고려와 인접한 遼東지역은 징기스칸의 막내동생인 오치긴(?赤斤)에게 분봉되었다.<sup>3)</sup>

일 汗國(1256-1335)은 4개의 汗國중 가장 늦게 성립되었는데 툴루이의 장남 몽케칸이 파견했던 동생 훌레구(재위 1258-1265년)가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그 뒤 아제르바이잔을 자신의 본거지로 세운 나라이다.

가잔칸(1295-1304)은 각국의 언어에 능통한 총명한 군주였으며 국내 주요 세력의 대두를 철저히 억제하여 중앙 집권체제를 개선하고 여러 제도의 개혁을 단행했다. 외교면에서도 그리스도교권의 국가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元朝를 몽골제국의 종주로서 인정하여 신하의 예를 갖추었다. 그는 냉철하여 현실에 알맞는 정책을 실시하여 이 시대에 일칸국의 문화와 경제는 전성기를 맞이했다.<sup>4)</sup>

가잔은 자신이 즉위하기 전에는 죽은 쿠빌라이를 존경하고 있었고 쿠빌라이의 元나라를 모범으로 하여 자신도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진 가잔은 세계에 분산되어있는 몽골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몽골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특히 이란 방면 몽골인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영화와 부귀의 근본이 훌레구와 그 혈통을 중심으로 한 결속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역사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sup>5)</sup>

### 2. 《集史》에 관하여

일칸국의 제 7대 가잔칸이 즉위한 해(1295)는 몽

골을 통일한지 90년이 되었고, 일칸국을 일으키지도 반세기나 되었으므로 후예들이 몽골족의 역사적 뿌리와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을 잊어가고 있었기에 가잔칸이 1300년에 라시드 앳딘(Rashid Ad-din:1247?-1318 페르시아인, 학자. 재상)에게 징기스칸의 역사(몽골제국사)를 편찬하도록 명령"하여 역사서가 완성되었다.

제8대 올자이트칸(1305년에 즉위)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지역을 포괄하는 세계제국의 경영자로서 그에 합당한 세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완성된 징기스칸의 역사서에 유라시아 제민족의 역사를 합하여 편찬하도록 명하여 1310년 완성된 것이 3권으로 된 《集史》이다.

《集史》는 페르시아어로 쓰여졌으며, 제 1권은 몽골사로, 제 1부는 몽골계 諸부족의 역사, 제 2부는 징기스칸의 선조의 역사로 시작하여 징기스칸의 몽골통일과 세계 정복, 諸칸국의 역사를 기술하였는데 가잔칸 까지도이다. 제 2권은 세계사로 아담 이래의 족장, 예언자의 전기, 무함마드와 카리프의 역사, 셀주크朝, 보타마스朝 등의 이슬람諸왕조의 역사, 투르크(Turks)사, 중국사, 유다(Jews)사, 후랑크(Franks)사, 인도사로 이루어졌다. 제3권은 지리편이다.

《集史》는 명쾌한 문체, 객관적인 사관, 광범위한 지식에 의해 쓰여진 글지의 世界史이며 이란문학에 큰영향을 주었다. 현재 『集史』의 사본이 세계 각지의 文書館, 圖書館에 보존되어 있다.

사용된 《集史》는 파리 국립 박물관의 사본으로 14세기에 筆寫된 것으로 삽화가 많이 있다.<sup>6)</sup>

“삽화를 그리기 위하여 중국화가와 몽골화가를 초청해 갔다”고 한다.<sup>7)</sup> 또한 <종합사: 集史>에서 라시드 앳딘은 이슬람학자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신라가 아닌 고려로 호칭하고 있다. <종합사>를 작성하던 시기의 이란국에는 많은 수의 중국인 화가가 있었고 동아시아의 역사를 기록함에 그들의 도움이 컸다. 개개의 國家史 집필은 해당 국가출신 사람들에게 의뢰하였는데, 몽골사는 몽골인에게, 프랑크사 부분은 프랑크인에게, 중국사는 중국인에게 집필하게 하였다. 특히 김순(완전 음역)이란 이름도 보이는데 元朝에 봉사하던 한국인 학자중의

한사람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sup>8)</sup>

여기서 중국이란 元이며 또한 이 당시의 몽골이란 元이라고 생각된다. 일칸국을 세운 훌레구는 元 세조의 동생이며, 일칸국은 元을 종주국으로 대우하여 매우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였다고 한다.

元에서 화가를 초청해 갈 때 몽골화가와 중국인(漢族)화가가 함께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 Ⅲ. 雲肩의 歷史와 雲紋

#### 1. 雲肩의 역사

운견의 형태는 四垂雲이라고 《元史》에 규정되었는데 사수운이란 가슴, 등, 양어깨로 운두(도 3-1)가 똑같이 내려진 것(도 1, 2)으로 元이전에도 사용되었는데 자료가 매우 적다. 시대순으로 고찰한다.

운견의 最古의 자료는 가시 자료로 五代의 樂妓와 舞妓가 착용한 것이다. 즉 五代 前蜀, 王建 묘石棺에 浮彫된 악기(도 4)와 왕건묘 벽화에 묘사된 무기가 무늬 없는 운견을 착용하였는데 목둘레는 등글다.

신강 木頭溝佛寺의 벽화에 高昌人이 운견(도 5)을 착용하였는데 高春明은 披肩<sup>9)</sup>이라 하였는데 운견을 피견의 한 종류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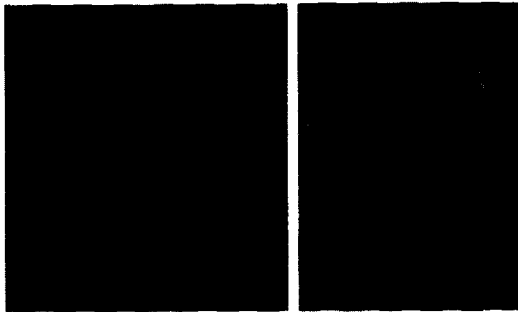
北宋 正和 7년 (1117) 山西城市의 선녀좌상(도 6)이 무늬 없는 운견을 착용하였는데 형태는 운두와 거의 같으며 黃能馥, 陳娟娟은 帔肩<sup>10)</sup>이라고 하였다. 이 운견은 목의 앞부분이 V형으로 元대의 운견(도 1)과 같다.

<도 7>은 金代 張瑀가 그린 文姬 歸漢圖卷 중의 文姬가 운견을 착용하고 있다. 金代에 그린 그림으로 雲肩과 服飾도 金代의 양식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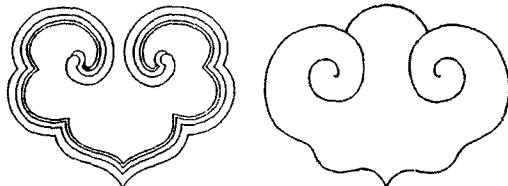
《大金集禮》의 與服 下에 “私家에서.....日月雲肩과 용문황색옷의 사용을 금했다”<sup>11)</sup> 기록과 “금대 여인의 雲肩은 귀족 命婦가 사용했으며 日, 月, 용무늬를 수놓은 것을 금했다”<sup>12)</sup>는 기록이 있다.

元대에는 운견을 보편적으로 사용한 기록은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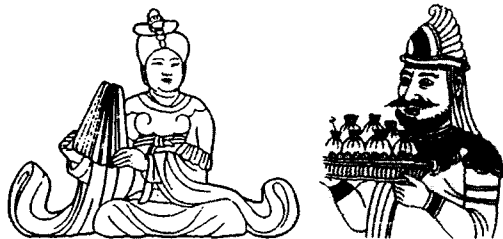
은 편이다. 元代부녀는 가슴, 등, 양어깨에 雲肩을 들렀고, 金代에도 이미 雲肩이 있었다. 順帝(1333-1367)시대 天魔中の 舞者는 金采襖를 입었고 雲肩을 했다. 또한 楊子器의 《元宮詞》중 “金繡雲肩翠玉纓” 및 《元氏掖庭記》의 “帶雲肩迎風之組” 등의 기록<sup>13)</sup>으로 舞女와 宮人의 운건 착용이 많았고, 운건 제작이 매우 화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 1> 킷차크칸국을 세운 바토칸(1227-55)의 운건(몽골 제국, p.136)(좌)  
 <도 2> 가잔칸(1295-1305)의 운건뒷모습(조일백과 세계의 역사 C-350)(우)



<도 3-1> 운두(顛頭, 중국 길상도안, p.501)(좌)  
 <도 3-2> 여의두(중국길상도안, p.51)(우)



<도 4> 五代 왕건묘 석관의 樂妓의 운건(중국고대복식연구, p.272)(좌)  
 <도 5> 신강 木頭溝佛寺 벽화의 고창인의 운건(중국복식 명물고, p.585)(우)



<도 6> 복송 彩塑 선녀상(중화복식예술원류, p.268)(좌)  
 <도 7> 문희귀한도 중 문희의 운건(중국복장사, p.62)(우)

元史 《禮樂志》에 부녀 20인이 風翹冠을 쓰고 翠花鈿을 꽂고 넓은 옷에 雲肩을 가했다. 당연히 鹵簿의 의장에도 雲肩이 사용됐다고 본다<sup>14)</sup>고 하였다.

《원사 여복지》에 규정하기를 “雲肩은 四垂雲이고 옷감은 청, 록, 황색 羅이며 색은 5색이며 금을 삽입하여 만든다.”<sup>15)</sup>하였다.

가시적 자료로 《元史與服志》에 質孫官服을 입은 관리(도8)와 質孫帝服을 입은 관리(도9)가 그려져 있는데 어깨에 두른 것을 披領 즉 賈哈이라고 하였다.<sup>16)</sup> 관리들이 어깨에 두른 것은 운건이며 무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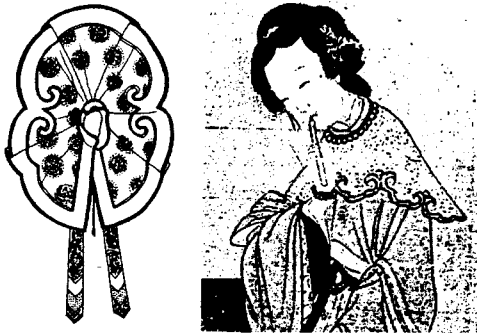
元대 佛衣에 사용된 운건 실물(도10)이 북경 고궁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옷감은 홍색 織金錦(納石矢)인데 거북, 원룡봉문이 있다. 운건 길이 43cm, 어깨너비 70cm, 깃너비 8cm, 표대(너비 6.8×42cm)가 앞의 양 끝에 달려 있고, 깃 양 끝에 달린 녹색실로 짠 組帶로 매어 여미게 되어 있다.<sup>17)</sup> 《집사》의 삽화 17점을 보면 징기스칸을 비롯 아들, 손자, 며느리, 신하등 120인 중 59인이 운건을 착용하고 있다.

明代에도 雲肩이(도11) 계속되었는데, 士庶 여자들도 사용하였고 예복을 위해 만들었다. 淸初의 부녀는 예를 행하거나 신혼 때 雲肩을 만들어 장식하였다. 光緒(1875-1908) 말년에 이르러 강남의 부녀는 짧을 낮게 하여 어깨까지 늘어뜨렸으므로 의복이 더러워 질 것을 염려하여 넓고 크게 만들어 응용하였다.<sup>18)</sup> 청대에는 변형된 운건(도 12)이 널리 착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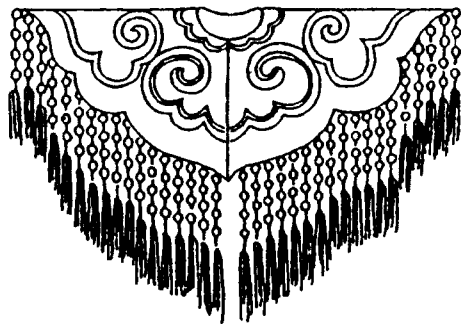
<도 8> 質孫官服 据<元史與服志> 會制(중국고대 人物服式與書法, p.132)(좌)

<도 9> 質孫制服 据<元史·與服志> 會制(중국고대 人物服式與書法, p.131)(우)



<도 10> 元代織金?云肩(北京故宮博物院藏?物)(중국복식 명물고, p.586)(좌)

<도 11> 明代부녀의 운견(중화복식에술원류, p.381)(우)



<도 12> 청대운견(고춘명, 중국복장사)

## 2. 雲紋과 如意紋

구름은 하느님 또는 신선의 대표적인 탈것일 뿐 아니라, 만물을 잘 자라게 하는 비의 근원으로 길

상을 상징하며, 각종의 도안에 쓰이고 있다. 구름의 모양에 따라 雲頭(도 3-1), 雲紋, 祥雲錦, 공중에서 움직이는 형상은 流雲錦, 서로 연쇄적인 모양인 것을 ‘套云拐子’라고 하는데, 면면히 이어져 단절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옷감, 건축, 가구, 여러기물, 조각 등의 방면에 매우 광범하게 응용된다.

如意는 영지버섯의 형상과 불교의 전래와 함께 수입된 1尺-2尺길이의 기물이 서로 결합된 일종의 吉祥物이다. 또 영지버섯의 모양이 마치 상서로운 구름이 한데 모여 있는 것 같음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길상의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더 나아가 고도의 상상력과 응축된 표현력을 발휘하여 구름을 영지버섯 모양으로 그려낸 如意紋을 如意雲이라고 일컫게 되었다.<sup>19)</sup>

운두는 운문이라고 하는데 如意頭(도 3-2)와 비슷하여 “운건을 四合如意式이라고 표현하는 견해”<sup>20)</sup>도 있다. 여의문은 구름의 형상과 같은 영지문과 여의라는 기물이 합쳐진 것으로 운문과 여의문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져서, 여의문이 유행된 후에는 사람들이 무의식중에 운문을 여의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나 생각된다.

## IV. 《集史》에 나타난 雲肩

16점의 삽화를 고찰한 결과 운건을 착용한 사람은(도13, 14)의 황제와 妻妾, 왕자 및 신하(도 26), 총 59인이 착용하고 있으며 長袍(도 14), 裕護(도 13, 14), 外衣(도 15), 여자의 大衣(도 14)위에 하였는데, 답호의 착용이 제일 많은 탓<sup>21)</sup>인지 답호에 운건을 착용한 경우가 제일 많다.

운건의 형태와 운건 안쪽에 시문된 무늬 및 계층에 따른 운건을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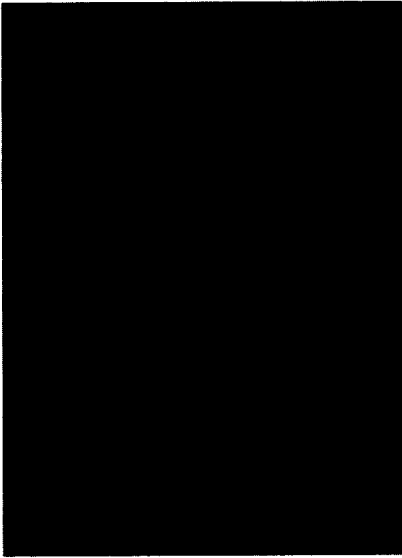
### 1. 雲肩의 형태

삽화에 표현된 운건은 똑같은 雲頭 4개가 가슴, 등, 어깨로 늘어지는 四垂雲이며, 운두 안쪽에는 금색으로 무늬를 세밀하게 표현한 것이 원사여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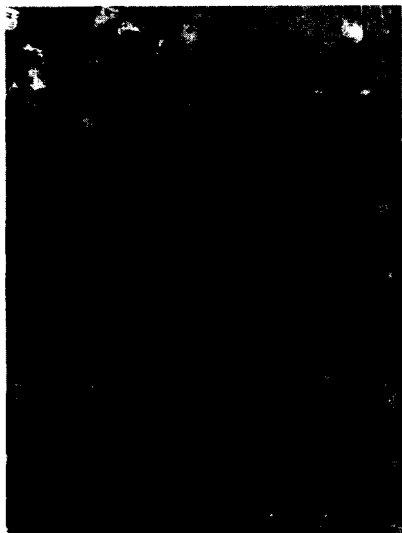
지의 기록과 일치한다.(주 15 참조)

운두는 3가지 형으로 대별되었다. ①가로가 세로보다 긴타원형(도 1, 22, 27), ②가로, 세로가 비슷하고 끝이 뾰족한 하트 형(도 20, 21, 23, 25) ③ 끝이 뾰족하지 않은 등근형(도 24)으로 나뉜다.

운건의 앞은 V형(도 13, 14)으로 중앙이 트였다. (도 15)



<도 13> 징기스칸의 손자들, 맨 윗줄 좌부터 훌레구, 쿠빌라이, 몽케(몽골제국, p.29)



<도 14> 몽케칸과 가족의 하트형운건(몽골제국, p.15)



<도 15> 外衣위에 착용한 징기스칸의 운건 (대세계사 II, p.334)

## 2. 雲肩에 시문된 무늬

운건에 사용된 무늬중에 분명한 것만 택하여 26개의 운건을 분석하였다. 운건에 사용된 무늬는 동물문과 식물문으로 나뉘며 동물문(4개)보다 식물문(22개)의 사용이 훨씬 많다.

### 1) 동물문

동물문은 식물과 함께 그려져 있는데 종류는 용문(1인), 오리와 뱀(2인), 거북과 기린같이 보이는 것(1인)등이다.



<도 16> 몽케칸의 오리·용문운건(몽골제국, p.139)(좌)

<도 17> 쿠빌라이칸의 오리·용문운건(몽골제국, p.29)(우)

오리와 용(도 16)은 현종(몽케칸)과 쿠빌라이 칸(도 17)이 착용하였는데 오리와 용문의 크기가 거의 같다. 두 마리의 용(뱀?)을 마주보게, 배열한 운건은 훌레구 칸이 1256년 봄에 대연회를 베푸는 장

면중 홀레구 칸의 우측에 서있는 신하(왕자? 도 18)가 착용했다. 툴루이칸(도 19)의 거북과 기린으로 보이는 운건은 가슴과 양어깨에 걸쳐 있어 옷감에 시문된 무늬인지 운건의 다른 형태인지 연구과제이다.



<도 18> 홀레구칸 앞에서 있는 신하의 용문 운건(World, p.22)(좌)

<도 19> 툴루이칸의 기린·거북문 운건(몽골제국, p.28)(우)

2) 식물문

雲頭에 시문된 식물문은 똑같은 것은 없다. 주체가 되는 무늬나 줄기, 잎 등의 형태와 배열에도 근소한 차이가 있어서, 주체가 되는 무늬 중 비슷한 것끼리 모아 분류하였다.

(1) 꽃송이를 배치한 도안

도안의 주제는 꽃송이이다. 꽃잎은 5개-6개(도 20-26)가 있으며 꽃송이의 형태는 같은 것이 없고 유사한 것은 있다. 꽃송이의 배치상태는 꽃송이를 중앙에 한송이(도 20, 21, 24)나 2송이(도 22, 25) 혹은 3송이(도 23, 26)를 배치하고 꽃송이의 둘레나 사이사이에 잎과 줄기를 배열하였다.

(2) 꽃송이를 거꾸로 배치한 도안

꽃송이를 거꾸로 1개-3개 배치(도 24-26)한 도안으로 배치상태는 (1)과 같이 중앙에 꽃송이를 두고 꽃송이의 둘레나 사이사이에 잎과 줄기를 배열하였다.

(3) 잎과 가지가 분산된 도안

주체가 없고 잎과 가지가 분산된 도안으로 잎과

가지를 모두 세우거나 거꾸로(도 27)배치하였다.



<도 20> 몽케칸과 가족중 왕자의 운건(몽골제국, p.15)(좌)

<도 21> 몽케칸과 가족중 왕자의 운건(몽골제국, p.15)(우)

3. 계급에 따른 雲肩

계급에 따른 운건의 형태나 무늬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삽화에 등장한 사람들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많고 무늬의 등급도 알 수 없어 비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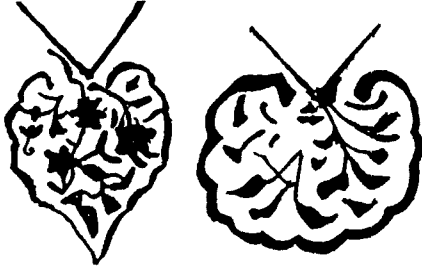
<도 22> 징기스칸의 손자들 중 홀레구의 운건(몽골제국, p.29)(좌)

<도 23> 몽케칸과 가족중 3번째 여인(몽골제국, p.15)(우)



<도 24> 오고타인칸의 즉위식 중 신하의 운건(몽골제국, p.23)(좌)

<도 25> 톨의 대연회를 베푼 홀레구칸의 운건(World, p.22)(우)



<도 26> 징기스칸에게 신하의 예를 드리는 장면중 서있는 신하의 운건(대세계사 II, p.334)(좌)  
 <도 27> 오르도에 귀환한 징기스칸 옆에 서 있는 신하의 운건(몽골제국, p.102)(우)

기가 어려웠다. 신분을 알수 있는 징기스칸의 손자들(도13)과 몽케칸과 그 가족(도14)을 택하여 비교한다.

<도 13>은 징기스칸의 손자들인 홀레구(쿠빌라이의 동생 일칸국의 초대 황제), 쿠빌라이(元太祖), 몽케22)外 총 9명의 손자가 있다. 이중에서 운건은 홀레구와 쿠빌라이의 1인의 손자가 착용했다.

맨 첫줄 좌측 첫 번째 홀레구의 운건은 <도 22>이며 가로가 세로보다 긴 타원형이며, 중앙의 쿠빌라이는 청색 담호 위에 오리와 뱀이 시문된 운건(도17)으로 가로 세로가 같은 원형을 착용하였으나 3번째의 몽케는 운건이 없다. 2째줄 3번째 손자가 녹색 담호 위에 착용한 운건은 <도 20>형이다.

<도 14>는 몽케칸과 가족 14명이 등장하며 운건 착용이 많다. 맨 뒷줄의 좌석에 앉은 3人中 중앙에 앉은 몽케칸은 운건이 없고 왕자 4人과 처첩 3人이 운건을 착용하고 있다.

7人 모두 식물문 운건을 착용하고 있는데 주제는 비슷하지만 똑같은 것은 없다. 운건 형태는 모두 가로 세로가 같고 끝이 뾰족한 하트형이다.

왕자 중의 1人이 착용한 운건은 <도 21>이다. 다른 왕자 3人은 <도 20>형 운건을 착용했다. 여인 3인은 가운데 줄의 좌석에 앉아 있는데 중앙의 홍색 大衣를 입은 여인이 왕비인 듯하다. 분홍대의를 입은 첫째 번 여인은 <도 21>형 운건을 착용했고, 중앙의 왕비는 <도 22>형 운건을, 3째 번 여인이 주황 大衣 위에 착용한 운건은 <도 23>이다.

운건의 형태와 무늬를 비교한 결과 계급과 시대

에 따른 변화는 찾을 수 없고, 여러 가지형이 혼용되었다.

<도 13> 즉 징기스칸의 손자들인 홀레구와 쿠빌라이의 운건형태가 다르나 징기스칸(1206년 즉위, 도19)의 운건과 《集史》의 집필을 명령한 가잔칸(재위 1295-1305 도 2)의 운건은 같다.(가로와 세로가 같고 끝이 뾰족한 하트 형태)

또한 손자 시절의 홀레구의 운건인 <도 22>와 홀레구칸(도 25)의 운건의 형태가 다르며 시문된 무늬도 2개의 꽃송이가 바로선 것과 거꾸로 된 것으로 차이가 있다.

## V. 結 言

《集史》의 삽화에 나타난 운건의 형태와 무늬를 고찰한 결과는,

① 운건착용자는 황제, 왕자, 처첩, 관리, 남자 舞人, 처형하는 사람등 59인이다. 元代 기록에 운건착용이 보편적이었던 기록과 일치한다.

② 운건은 長袍, 담호, 外衣, 여자의 大衣위에 사용하였다. 또한 《元史與服志》에 의거하여 그린 질손관복위에 착용하였다.

③ 운건의 형태는 雲頭(도3-1) 4개가 가슴, 등, 양어깨에 똑같이 늘어지며 운두 안쪽에는 금색으로 무늬를 세밀하게 표현한 것이 《元史與服志》의 기록과 일치한다. 운건의 목둘레의 앞은 V형으로 중심이 트였다. 《元史與服志》에 질손관리복의 옷깃은 V형이다.

④ 雲頭의 형태는 가로가 세로보다 긴타원형(도 1), 가로,세로가 같고 끝이 뾰족한 하트형(도 20)과 원형(도24) 세가지로 대별된다.

⑤ 시문된 무늬는 동물문과 식물문으로 나뉘며 식물문이 대부분이다. 식물문은 꽃송이가 바로선 형(도20-23)과 거꾸로선 형(도 24-26)과 잎과 가지를 분산하여 배치하되 바로선 것과 거꾸로 된 형(도27)으로 크게 분류된다.

⑥ 삽화에 나타난 운건은 시대, 계급, 성별에 따라 운두의 형태와 무늬의 차이를 찾을 수 없었고



모두 혼용되었다. 《元史與服志》의 관리의 운건에는 무늬가 없었다.

## 참고문헌

- 1) 高春明(2001). 中國服飾名物考. 上海文化出版社 pp.581-589.
- 2) 세계역사시리즈 12(1970). 몽골제국, 세계문화사(東京). 歷史讀本 World(1991). 특집- 징기스칸과 몽골제국. 新人物往來社(東京). 3월호.  
원색도설 대세계사 2(1982). 아시아국가의 전개. 태극출판사.  
E. Blochet(1975). Musulman Painting. 12C-17C. Hacker Art Books(new york).  
세계문화사Ⅲ(1964). 유럽중세의 아세아의 발전. 학원사.  
週刊朝日百科世界の歴史(1989). 51권. 53권 朝日신문사(東京).
-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권(1989). <몽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86.
- 4) 원색도설 대세계사 2. p.340.
- 5) 스키야마 마사키 지음 임대희외 2인 옮김(1999). 몽골세계제국. 신서원, p.12.
- 6) 역사독본 World, 21쪽  
라시드앗딘 저 김호동 역주(2002). 라시드 앳딘의 집사 1. 부족지. 사계절, pp.26-28.
- 7) Norah. M. Titley(1983) *Persian miniature painting*. University of Texax Press Austin, p.17.  
데 바이에르 저 박원길 역(1995). 몽골석인상의 연구. 도서출판 헤인, p.53.
- 8) 이희수(1991). 한·이슬람 교류사, 문덕사, pp120-121.
- 9) 高春明. 앞의 책. p.584.
- 10) 黃能馥, 陳娟娟 편저(1994). 中華服飾藝術原流. 고등교육출판사, p.268.
- 11) 大金集禮. -輿服下 又禁私家用純黃帳幕陳設 若會經宣賜鑿輿, 服御, 車輿, 日月雲肩, 龍文黃服, 玉簡鞞眼之鞍, 皆順更改.
- 12) 주석보(1986). 중국고대복식사, 중국 희극출판사(북경), p.344.
- 13) 주석보. 위의 책. p.356.
- 14) 고춘명. 앞의 책. p.585.
- 15) 25史.(1979). <元史> 輿服志 雲肩制如四垂雲, 青錄黃羅, 五色嵌金爲之 경인문화사. 영인본.
- 16) 黃輝(1977). 中國古代人物服式與畫法. 上海人民美術出版社. pp.131-132.
- 17) 中國美術全集(1987). 工藝미술편 7. 印染織綉(下). 신화서점(북경). 도판해설.
- 18) 華梅(1989). 中國服裝史. 天津人民美術出版社. pp.82-83.
- 19) 野岐誠近저, 변영섭, 안경길 역(1992). 중국 吉祥圖案. 도서출판 예경. 운문, p.498, 여의문, p.47.
- 20) 中央工藝美術學院편저. 工藝美術辭典. 흑룡강인민출판사 <운건>.
- 21) 김미자(1994). 集史에 나타난 몽고복식, 서울여대 여성 연구논총, 제9집, p.93.  
이 논문에서는 반수포라 했으나 답호로 밝혀져 답호로 고쳤음.
- 22) 툴루이의 장손이 몽케이므로 수염 기른 우측인을 몽케로 보았고 수염없는 좌측인을 막내인 홀레구로 보았다.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